

무장독립투쟁과 한국광복군을 이끈 탁월한 군지휘관 지청천



“조국광복을 위해 싸웁시다. 싸우다 힘이 부족할 때에는 이 넓은 만주벌판을 베개 삼아 죽을 것을 맹세합시다.”¹⁾

“내 민족을 떠나 타민족의 해방운동이 없을 것이고, 또 내 조국을 찾아내기에 독립운동이니, 남의 조국이나 남의 민족을 위한 피나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고 하여 단연히 합류를 거절하였다.”²⁾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한국독립군의 지휘관 지청천의 말이고 주장으로, 그의 굳건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한중 연합 작전을 추진하면서 우리 독립군 부대를 중국군 부대에 합류시킬 것을 강요하는 중국군의 강요에 대한 지청천의 응대였다.



남궁원
서울고등학교
수석교사

1)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243&bbsNo=85&nttNo=154153&searchCtgr=&searchCnd=all&searchKwrd=&pageIndex=1&integrDeptCode=>

2) 지현모,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 삼성출판사, 1949, 150p
[한상도, 「재만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의 중국관내지역 이동」(『사학연구』 제55·56합집호, 775p) 재인용]

1931년 만주사변에 이은 1932년 만주국의 성립은 한중에 있어 자연스레 연합작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배경이 되었다. 만주에 주둔하는 일본군과 일본 세력은 침입자이자 침략자였으며, 이에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군과 우리 독립군은 일본군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결성하게 되었다. 1930년대 만주 지역 독립군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지청천과 양세봉을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의 활약에 일본군은 혼쫓이 났으며, 이들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만주에서의 침탈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지청천은 1930년대 한국독립군을 이끌고 한중 연합 작전의 탁월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었으며, 1940년 결성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의 행적을 살펴 그의 가르침을 새기고자 한다.

지청천은 이름이 여럿이다. 처음 이름은 석규였고, 후에 대형으로 개명하였으며, 1920년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는 이청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일본 측 기록이나 우리 측 기록에 이청천으로 나오기도 한다.³⁾ 그는 청천이란 별호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백산이라는 호도 사용하였다고 한다.⁴⁾ 이는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숨기려는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청천은 1888년 오늘날의 서울 삼청동에서 태어나 교동소학교(현재의 교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배재학당을 거쳐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907년 군대 해산으로 대한제국의 군사 조직이 미약한 상황이 지속되다 1909년 무관학교가 폐쇄되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여 수학하고 1914년 졸업하였다. 1914년 말에 소위로 임관된 지청천은 일본군으로 활동하다가 1919년 동기인 김경천과 더불어 일본군을 탈영하여 남만주의 삼원보로 망명하였다.⁵⁾ 그는 그곳에서 신흥무관학교⁶⁾의 교관으로서 많은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다.⁷⁾ 신흥무관학교의 교관 시절에는 지청천, 김경천, 신팔균 등의 활약으로 이른바 ‘남만 3천’의 전설로 회자

3) 이기동, 『이청천』(『한국사 시민 강좌』 47, 일조각, 2010, 183p)

4) 이기동, 위의 논문

5) 일본에서 근무하던 중 병을 핑계로 귀국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만주 삼원보로 갔다.

6) 신민회의 임원이었던 이회영, 이상룡, 이동녕 등이 중국 만주로 이주해 1911년 자치단체 경학사를 조직하고 함께 세운 무관학교로 처음 이름은 신흥강습소였다. 1919년 5월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신흥무관학교는 통화현 합니하(哈泥河)에 본교를, 그리고 통화현 쾌대모자(快大帽子)와 유하현 고산자(孤山子) 등지에 분교를 두었다(국편, 『신편한국사』 48, 207~208p)

7)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서간도의 서로군정서와 북간도의 북로군정서 등의 부대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의열단을 결성한 김원봉 역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 2011, 14~16p).

되던 시기였다.⁸⁾

한편,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서간도 지역의 한족회는 독립군 부대를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서로군정서를 구성하였는데 지청천이 부대 사령관에 취임하였다. 그런데 1920년 6월의 봉오동 전투⁹⁾, 훈춘 사건¹⁰⁾과 청산리 대첩¹¹⁾ 등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이 대규모 정규 부대를 동원한 독립군 토벌 작전과 간도 참변으로 인하여 신흥무관학교의 운영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독립군 부대의 이동이 추진되었다. 부대를 이끌고 동북 방면으로 이동을 단행하여 념안에서 홍범도와 김좌진 등을 만나 합류하였다. 이들은 우수리강변으로 이동하여 밀산부의 후린(虎林)에서 대한독립군단을 편성하였다.

대한독립군단은 한 개 여단 밑에 3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개 대대는 3개 중대, 1개 중대는 3개 소대로 각각 구성되었고, 1개 소대의 구성원은 27명으로, 총병력이 3,500여 명에 달하였다. 대한독립군단의 총재는 대한군정서의 지도자였던 서일이 맡았으며, 부총재에는 청산리 대첩의 명장인 홍범도와 김좌진, 조성환 등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총사령에는 김규식, 참모총장에는 이장녕, 여단장에는 서로군정서 사령관이던 지청천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김창환, 조동식, 윤경천, 오광선 등이 중대장을 맡았다.¹²⁾

이들은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 재기를 모색하고자 하여 마침내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들이 러시아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볼셰비키 정부가 피압박 약소민족의 해방투쟁에 대한 후원을 공약하였기 때문이다.¹³⁾ 이들이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겪은 고통과 고단함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8) 지청천, 김경천과 더불어 신평군이 동천이라는 별칭으로 불렸기에 이들을 합하여 남만의 3천(天)이라 불렸다. 게다가 지청천과 김경천은 일본 육사의 최신 군사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신평군은 대한제국의 무관학교 출신이었던 탓에 이들에 대한 학교와 인근 한인들의 지지와 감정이 대단하였다.

9) 일제가 두만강 너머에 있던 독립군을 공격해오자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 등으로 편성된 독립군 연합 부대는 봉오동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을 기습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10) 1920년 10월 초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괴한들이 습격하여 일본인 14명이 즉사한 사건으로, 이에 대하여 마적을 가장한 일본의 자작극이라는 설과 한국인 소행이라는 설, 한국의 독립군의 활약이라는 설이 있다.

11)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후 일주일 동안 화룡현 이도구, 삼도구 일대에서 아즈마 마사히코(東正彦) 소장이 지휘하던 일본군 주력부대를 맞아 백운명 전투(白雲坪戰鬪)를 시작으로 완루구, 어량촌, 천수평, 봉밀구, 고동하 등지에서 벌인 대소 10여 회의 회전에서 독립군이 거둔 승첩을 통칭하는 말이다(국편, 『신편한국사』 48, 228p)

12) 국사편찬위원회편, 『신편한국사』 48, 242p

13) 국사편찬위원회편, 『신편한국사』 48, 241p

때는 일기가 혹독히 추운겨울이라 몸에는 솜을 붙이지 못하고 발에는 홑감발에 미투리뿐인 그 모양이 어떠하오리까. 할 일 없어 중동선 북으로 향하여 첫째는 군인의 얼고 졸임을 면코자 하며, 둘째는 여러 군대를 모으고자 하니 먼 데는 수천리요, 가까운 데는 칠팔백리 되는 험한 산골 뻥뻥한 산림을 지나는지라, 이 일이 어찌 쉽소오리까. 더구나 중동선 북에는 우리 동포의 집이 드물어서 몇백명 군인의 의복과 양식도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사세에 의지하며 다시 아령 이만으로 가게 되었나이다. 아령 이만으로 간 뒤에 여러 군단이 합하여 전 날 명의를 모두 작소하고 대한독립군이라 이름하여 한 기관 아래에 지휘를 받게 되었더라. (종략) 슬프다, 물없는 웅덩이의 고기요, 불붙는 기둥위의 제비라. 이를 뉘 능히 구하며, 뉘 능히 살게 하리요. 많으나 적으나 우리 동포가 아니면 그 뉘라서 돌아보오리까. 감히 비옵나니 밑없는 구덩이에 빠지 무리를 건져주시옵소서.¹⁴⁾

자유시에 이동한 독립군은 난관에 부딪혔다. 독립군과 현지를 관장하는 러시아의 치타 정부의 갈등, 독립군 내부의 갈등으로 대립하였다. 당시 고려공산당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결국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 치타 정부는 독립군에게 무조건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사적인 충돌로 인하여 독립군이 희생을 당하는 이른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¹⁵⁾ 이때 지청천은 러시아 적군에 의해 이르쿠츠크로 끌려가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청으로 곧 석방되었고, 시베리아를 벗어나 다시 만주로 돌아왔다.¹⁶⁾

1923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진로와 독립운동의 방략을 둘러싼 민족 지도자들의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새롭게 재구성하자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그대로 두고 개편하자는 개조파 사이의 대립으로 국민 대표 회의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으며, 민족 지도자들은 임시정부를 떠나 각자의 방향으로 제 발길을 돌렸다. 이후 만주 지역에서는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단체 통합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압록강 연안 지역에서는 육군 주만 참의부가 설립되었고, 남만주 일대에 정의부, 북만주 일대에 신민부가 결성되었다.

14) 『雲南李承晩文書』7, 561~568쪽(국편, 『신편한국사』 48, 244p 재인용)

15) 자유시 참변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국편, 『신편한국사』 48, 251~255p).

16) 이기동, 위의 논문

시베리아에서 류하현 삼원보로 돌아온 지청천은 서로군정서를 모체로 한 정의부 결성에 참여하였다. 그는 정의부의 중앙행정위원 9인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고, 군사위원장도 겸하였다.¹⁷⁾ 정의부의 무장활동을 실천한 의용군 사령부는 다섯 개의 중대와 헌병대로 구성되었으며, 사령장 지청천(별명 지대형)과 부사령관 김창현(별명 창환)이 대원 410명을 이끌었다.¹⁸⁾ 정의부는 참의부, 신민부와 더불어 당시 만주 지역에서 민정 조직과 군정 조직을 갖춘 공화주의 자치 정부의 성격을 지녔다. 정의부가 벌인 항일 활동으로는 첫째, 국내진입전 전개, 둘째, 관할 지역 한인 집을 근거지로 한 통신망 구축, 셋째, 남만 관할 지역에 배치된 독립군 및 배일한인을 탄압하는 중·일군경대와 친일 집단을 향한 무장활동 등이다.¹⁹⁾

한편 1920년대 후반, 민족 유일당 운동이 국내외에서 전개되면서²⁰⁾ 만주 지역에서도 3부 통합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6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에 취임한 홍진은 민족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강령을 제시하였다.

- ① 비타협적 자주독립의 신운동을 추진할 것.
- ② 전민족을 망라하여 공고한 당체(黨體)를 조직할 것.
- ③ 전세계 피압박 민족과 연맹하여 협동전선(協同戰線)을 조직하는 동시에 연락이 가능한 우방과 제휴할 것.

또한 안창호도 1926년 베이징(북경)에서 사회주의자인 원세훈을 만나 대동단결을 촉구하였으며, 1927년에는 길림성(吉林省) 대동공사에서 민족의 대동단결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만주에 있던 한인 민족운동자들 사이에 민족 유일당 조직을 위한 분

17) 『정의부공보』 제1호에는 지용기(본명 지대형, 별명 이청천)으로 기록되어 있다(국편, 『신편한국사』 48, 284p).

18) 국사편찬위원회편, 『신편한국사』 48, 285-286p

19) 국사편찬위원회편, 『신편한국사』 48, 289-290p.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1925년 이른바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여 만주 독립군의 활동을 위협하였다. 1925년 6월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와 중국 평톈성(奉天省) 경무처장 위진(于珍) 사이에 체결된 재중한국인 단속에 관한 협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헌은 재중 한인에 대해 호구를 엄격히 조사하고 연대책임제로 단속한다. 둘째, 무기를 휴대한 한인의 조선 내 월경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검거하여 총독부 관헌에게 인도한다. 셋째, 항일 한인 단체를 해산하고 갖고 있는 무기를 몰수한다. 넷째, 농민이 소유한 짐승 쫓아내는 용도의 총기를 제외한 한인 소유의 총기 및 화약을 수시로 수색해 전부 몰수한다. 다섯째, 일제가 지명하는 항일 단체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제 측 관헌에게 인도한다. 협정 실시 후 한국 민족 운동 세력의 국내 진공 건수는 1924년 560건에서 1925년 270건, 1926년 69건, 이후 1930년 3건 등 급격히 감소했다.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ld=0106&levelld=tg_004_2220&ganada=&pageUnit=10)

20) 베이징에서는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축성회가 결성되었고, 국내에서는 조선 민흥회의 결성과 정우회 선언을 바탕으로 1927년 2월에 민족 협동 전선인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위기가 고조되었다. 하지만 3부의 통합 운동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다.²¹⁾ 1928년 12월 하순에는 정의부의 인사 중 축성회를 지지하는 측과 신민부의 군정과 및 참의부의 일부가 연합하여 혁신 의회를 조직하였다. 체계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집행기관이 구성되었는데, 중앙집행위원장에는 김원식이 선임되고 중앙집행 위원에는 김승학, 지청천, 정신 등이 선출되었다. 또한 남만주 지역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통합 운동의 결과로 국민부가 조직되었다.

혁신 의회는 1930년 7월, 북만주 위하현에서 한국독립당으로 창당 개편되었다. 한국독립당은 대부분 대종교 신자 및 유림·기호지방 출신 인사들, 그리고 한학(漢學) 수학이나 무관학교를 졸업한 양반, 지주 출신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에 따라 이 당은 대체로 민족주의 및 반공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²²⁾ 1931년 일제가 만주 침략을 단행하자(만주사변) 한국독립당은 긴급중앙위원회를 열고 투쟁노선을 논의한 끝에 다음의 3가지 안건을 결의하였다.

- ① 각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려 정비된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
- ② 당내 모든 공작을 군사 방면에 집중할 것.
- ③ 특파원을 길림성 항일군사당국에 파견하여 한중합작을 상의할 것.²³⁾

이어 관할하는 지역의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려 징집을 실시하는 한편,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의 편제를 정하였다. 부사령관에 남대관, 참모관에 신숙, 의용군 중대장에 오광선 등을 임명하였다. 1931년 12월, 지청천과 신숙은 북만 중국 항일 세력의 본거지인 빈현으로 가서 중국항일군과의 연합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21) 참의부와 신민부 두 단체의 주장은 결국 축성회 측의 의견대로 기존의 단체를 모두 해체한 채 구성원의 요소를 개인으로 하여 민족의 대당(大黨)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결국 두 단체의 주장은 정의부와는 전면 반대되는 것이었다.

22) 국사편찬위원회편, 『신편한국사』 50, 335p

23) 국사편찬위원회편, 『신편한국사』 50, 336p

- ① 한·중 양군은 어떤 열악한 환경을 막론하고 장기 항전을 맹세한다.
- ② 중동철로(中東鐵路)를 경계로 하여 서부전선은 중국군이 맡고, 동부전선은 한국군이 담당한다.
- ③ 한·중 양군의 전시 후방교련은 한국군의 장교가 부담하고, 한국독립군의 소요일체 군수 물자는 중국군이 공급한다.²⁴⁾

한국독립군이 전개한 한중 연합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1932년 9월과 11월에 만주 길림성 쌍성보에서 고봉림(考鳳林) 부대와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파하였으며, 1933년 1월에는 요진산 및 시세영 부대와 연합하여 중한연합토일군(中韓聯合討日軍)을 편성하고 6월까지 경박호 전투, 사도하자 및 동경성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33년 6월 말과 7월 초 사이에는 시세영 부대와 연합하여 대전자령에서 철수하는 일본군 수송 부대를 매복, 기습하여 다음과 같은 많은 군수물자를 빼앗는 전과를 올렸다.

박격포 등 각종 포 8문, 각종 기관총 110자루, 소총 580자루, 탄약 300상자, 수류탄 100상자, 권총 200자루, 도검 40자루, 군용지도 2,000여 매, 각종 문서 300여 부, 피복·담요·기타 군장비 2,000여 건, 장갑차 2량, 망원경 25개 및 약품 50상자 등²⁵⁾

한편, 만주에서 전개되는 독립군의 활동을 주시하던 김구는 중국 관내에서 독립군을 양성함으로써 무장투쟁의 기반은 물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받음은 물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구는 장제스와 합의하여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국청년군사간부 특별훈련반’을 설치하였다. 1933년 말에 한국독립당의 홍진, 총사령 지청천, 그리고 조경한과 오광선 등 한국독립군의 주요 간부들과 병사 가운데 선발된 청년 약 30여 명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으며, 이 청년들은 낙양분교에 설치된 특별훈련반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24) 국사편찬위원회편, 『신편한국사』 50, 337-338p

25) 조경한, 「한국독립군과 중국의용군연합항일기실」, 『혁명공론』 창간호, 낙양, 1933(국편, 『신편한국사』 50, 341p 재인용)

이 시기 중국 관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1935년에 김규식을 주석으로 하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당되었다. 그러나 1935년 9월에 김원봉의 전권 장악에 반발하여 조소앙 등이 탈퇴하고, 이어 조성환과 홍진 등도 탈퇴하였다. 지청천은 1937년 조선민족혁명당의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군사부의 부장을 맡았으니, 그해 4월에 조선민족혁명당을 이탈하여 조선혁명당을 결성하였다. 임시정부를 사수하고 있던 김구(한국국민당 지도)는 조소앙이 재건한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과의 통합을 모색하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하였다.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었다. 3개 정당은 통합을 모색하여, 1939년 10월, 한국국민당의 조완구·엄항섭, 재건 한국독립당의 홍진·조소앙, 조선혁명당의 지청천·최동오 등이 참여한 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1940년 3월에 3당 통합을 위한 재차 대표대회가 소집되었다. 그해 5월 8에는 3당 해체와 신당의 창립을 알리는 '3당해체선언'을 발표하였고,²⁶⁾ 이어 5월 9일에는 '한국독립당창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우익 진영의 3개 정당이 합당하여 한국독립당이 탄생하였다. 중앙집행위원장에는 김구가, 중앙집행위원으로는 지청천 등 14명이 선출되었으며, 중앙감찰위원장에는 이동녕, 감찰위원에는 이시영 등 3명이 선출되어 당 조직을 갖추었다. 한국독립당은 이후 충칭(重慶) 시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집권당 역할을 하였다.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할 무렵 중일전쟁이 확산되고,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전개되었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제2차 세계 대전은 이른바 3대 추축국(독일·이탈리아·일본)과 연합국 간의 전쟁이었다. 이에 임시정부는 대일전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전시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한국광복군 창설을 준비하였다. 이미 임시정부 내에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와 낙양군관학교 등의 군관학교를 통해 양성된 군사인재들은 있었지만 이들은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었으며, 병력이 될 인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임시정부는 일본군 점령 지역에 이주해 있던 한인 청년들을 모집하는 한편, 서안으로 군사특파단을 파견하여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초모활동을 벌여 병력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재정 마련

26) "新黨의 前身이었던 3당은 이제부터 다시 존재할 조건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각기 解消될 것을 전제로 하고 신당 창립에 착수하였다. (중략) 우리 독립운동을 보다 유력하게 추진케 할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며 3당 자신은 이에 해소를 선언한다." [삼균학회, 『三黨解體宣言』, 『소앙선생문집』 상, 264쪽(국편, 『신편한국사』 50, 437p 재인용)]

을 위해 미주 동포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광복군 창설 인준과 지원교섭을 전개하며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1940년 5월 한국독립당의 김구 명의로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韓國光復軍編練計畫大綱)’을 주가화를 통해 장제스에게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편성한 뒤 중국군과 함께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²⁷⁾

한국광복군의 창설 준비가 마무리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를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1940년 9월 15일에 위원장 김구의 명의로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어 9월 17일에 충칭의 가릉빈관에서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임시 의정원을 비롯하여 중국측 인사들과 각국 외교사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식을 거행하였다. 창설 직후 총사령부와 3개 지대를 편성하여, 총사령부는 총사령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공진원, 제3지대장 김학규로 하였다. 이어 한국청년전지공작대²⁸⁾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여 제5지대로 편제하였다.

한편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이끌던 김원봉이 한커우에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는데 이들 역시 한국광복군처럼 중국 군사위원회의 통할을 받고 있었다. 이에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의 군사통일이 추진되었다. 1942년 5월 중국 군사위원회의 통합 제안을 받아 7월에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조선의용대개편선언’을 발표하고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1941년 12월, 일본은 미국의 해군기지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다. 임시정부는 12월 10일에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 명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여 임시정부가 일본과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였다. 인도·미얀마전선에 한국광복군 공작대원들을 파견하여 영국군과 함께 대일전쟁을 수행하였다.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던 영국군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을 한국광복군측에 요청하였고, 이에 광복군에서는 한지성과 문응국 등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작대원 9명을 선발하여 인도에 파견하였다.²⁹⁾ 한국광복군은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도 합작

27) 국사편찬위원회편, 『신편한국사』 50, 449p

28) 중국 관내에 결성되어 활동하던 단체로 무정부주의 계열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무장세력이다.

29) 국사편찬위원회편, 『신편한국사』 50, 457p

하여 국내진공작전을 계획 추진하였으며, 이 작전은 독수리작전³⁰⁾으로 구체화되었다. 1945년 4월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독수리작전이란 명칭하에 광복군과 OSS와의 합작이 실현되었고, 5월부터 3개월 과정의 OSS훈련이 시작되었다. 이 훈련에는 서안의 제2지대 대원들 중 김준엽, 장준하 등 50명이, 제3지대 대원들 중에서는 윤영무, 김영일 등 약 20여 명이 선발되어 참여하였다. 제1기생의 훈련이 8월 초 완료되자 국내진입작전이 추진되었다. 8월 7일에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지청천과 이범석 등 한국광복군 간부, OSS측 책임자인 도노반(William B. Donovan) 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안에서 국내진입을 위한 작전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침투작전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왜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이다.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청천은 해방 이후 한국광복군이 해체되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는 우익 청년 단체인 대동청년단을 설립하여 활동하였고,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초대 무임소장관으로 임명되어 국군 창설과 국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으며, 이후 자유당에 입당하여 정치 활동을 이어가다가 1957년, 숙환으로 사망하였다.

지청천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었다. 1919년 이후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이어 서로군정서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는 정의부에 참여하였고, 이후 한국독립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1930년대 북만주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펼쳐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그는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한국

30) 광복군 대원들을 선발하여 첩보 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을 한반도에 침투시켜 적후방 공작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부대를 지휘하여 한국광복군의 연합작전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활동을 보인 지청천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하던 한국독립당은 일제의 만주 침략 직후 한국독립군을 결성하였다.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대전자령 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 동아출판, 60p 〉



한국독립군의 총사령
지청천

〈 동아출판, 60p 〉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상하이를 떠나 중국 각지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구의 한국국민당, 조소앙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등 민족주의 계열의 3개 정당이 합당하여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다(1940). 한국독립당은 김구를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였다. 1940년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동아출판, 62p 〉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 의회를 계승한 한국독립당이 한국독립군을 조직하였다.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함께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였다.

〈 지학사, 42p 〉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면서 상당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 무대를 중국 관내로 옮겼다. 이후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항일 세력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그 결과 김원봉의 의열단을 비롯하여 조소앙, 지청천 등 좌·우의 여러 세력이 참여한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직되었다(1935).

〈 지학사, 63p 〉

이후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독립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하면서 항일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으며,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구성하였다.

〈 지학사, 64p 〉

북만주에서는 혁신 의회가 해체된 이후 지청천 등이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한국독립군을 조직하여 일제에 맞섰다.

〈 비상교육, 40p 〉

북만주 일대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지청천을 비롯한 한국독립군의 일부는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지청천은 한국광복군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비상교육, 62p 〉

민족혁명당에서 김원봉의 의열단 계열이 당을 주도하자 조소앙, 지청천 등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이탈하였다. 임시정부를 고수하려던 김구는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다(1935).

중일전쟁 발발 이후 한국국민당은 조소앙, 지청천 등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다(1937).

〈 비상교육, 65p 〉

1920년대 후반 3부는 남만주의 국민부와 북만주의 혁신 의회로 재편되었다. 국민부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였고, 북만주에서는 혁신 의회 해산 후 지청천 등이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다.

(40p)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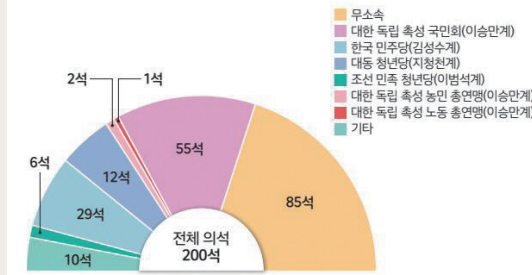
(42p)

〈씨마스, 40p, 42p〉

1940년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 중심의 지도 체제를 갖추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씨마스, 54p〉

자료 1 제헌 국회 의석의 정당·단체별 비율



〈씨마스, 79p〉

혁신 의회는 해산되고 그 이후 지청천 등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을 조직했다.(38p)

북만주에서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63p)

〈천재교육, 38p, 63p〉

1935년 난징에서 김원봉의 의열단이 중심이 되고 조소앙, 지청천 등이 참여한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중략) 조소앙, 지청천 등 민족주의계 일부 인사들은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이 당을 주도하자 탈당했다. (중략) 조선민족혁명당을 이탈한 조소앙과 지청천 세력은 김구와 함께 1937년에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를 조직한 후, 이를 기반으로 1940년에 한국독립당을 결성했다. (중략) 1940년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교섭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이어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었다.

〈천재교육, 64p〉

혁신 의회는 곧 해체되었고, 이후 지청천 등이 결성한 한국독립당으로 이어졌다. 한국독립당은 만주 사변이 일어나자 그 산하에 한국독립군을 편성하였다. (32p)

북만주에서도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중략) 한국독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청천 등 지도부 대부분이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지청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33p)

〈미래엔, 32p, 33p〉

자료2 대전자령 전투

대전자령의 양쪽은 우뚝 서 있어 그 절벽은 기어 올라갈 수 없는 험악한 골짜기였다. …… 지청천 장군은 우리 군(한국독립군) 500명만 선발대로 하고 중국군 2,000명과 혼성하여 교전을 맡기로 하였다. …… 제일 높은 곳에 우리 주력군을 두고, 중간과 아래에 우리 군 백여 명과 중국군을 배치하여 일본군의 후방이 이 고개의 중간을 넘었을 때 일시에 공격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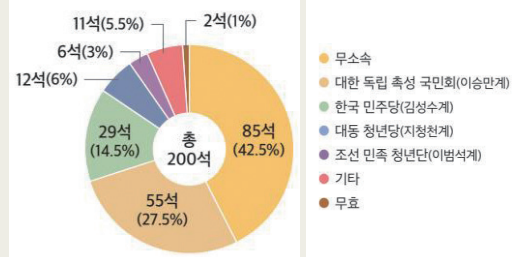
-지현모, 『청천 장군의 혁명 투쟁사』-

〈미래엔, 33p〉

혁신 의회가 해체된 이후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었고 그 아래에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 (중략)

북만주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 쌍성보 전투,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리베르스쿨, 43p 〉



〈 리베르스쿨, 85p 〉

지청천이 지휘하는 북만주의 한국독립군도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중략)
한국독립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지청천을 비롯한 지도부가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다.

〈 해냄에듀, 50p 〉

김구, 지청천, 조소앙 등 민족주의 계열은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김구를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하여 단일 지도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해냄에듀, 52p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 해냄에듀, 53p 〉

총사령관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 등 북만주 지역의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였다.

〈 한국학력평가원, 41p 〉

이후 통일된 항일 전선을 만들기 위해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조소앙의 한국독립당, 미주대한독립단 등이 연대하여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1935).

〈 한국학력평가원, 68p 〉

1940년 충칭에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가 주도한 한국국민당과 조소앙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을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다.

〈 한국학력평가원, 69p 〉

2025년 3월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³¹⁾의 9종 모두에서 지청천의 활약이 소개되고 있다. 모든 교과서에는 1930년대 한국독립군의 한중 연합 작전, 충칭 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당 역할을 하였던 한국독립당에 참여한 내용, 그리고 임시정부의 국군이었던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내용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일부 교

3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되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하였다. 2025학년도 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사1은 주로 전근대와 19세기의 한국사를 포함하는 교육과정이며, 한국사2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사를 포함하고 있다.

과서는 해방 이후 1948년 5·10 총선거의 결과 대동청년당(지청천계)의 제헌국회 의석수를 서술하고 있다.

일본 육사를 졸업하였지만 뜻한 바가 있어 독립군에 가담하여 지청천이 보여준 독립군 전사상의 빛날 업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으로서 한국광복군의 다양한 활동(연합군과의 공동 작전, 국내 진공 작전)을 주도한 점은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방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강대국과의 외교를 통한 독립을 바라는 외교론, 우리 민족의 힘을 길러 독립을 얻는 실력양성론, 그리고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을 달성하는 무장투쟁론이다.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길 수 없지만, 지청천과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무장독립투쟁은 우리 민족의 강렬한 독립 열망을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보여주는 장엄한 과정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연합국의 엄중한 공격으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압에서 벗어났지만, 실은 가열찬 독립운동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오늘의 우리가 존재함을 기억함이 마땅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공부하는 학습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참고 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48(『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nh_048)
-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50(『전시체제와 민족운동』)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nh_050)
- 이준식, 「임시정부의 국군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월간 순국』 2024년 4월)
- 김승기,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연합적전 성과」(『월간 순국』 2024년 9월)
- 노경채, 「일본 육사 출신의 광복군 총사령 지청천」(『내일을 여는 역사』 제1호 2000년 4월)
- 이기동, 「이청천-일본육사 출신의 항일무장투쟁 지도자」(『한국사 시민강좌』 제47집 2010년 8월)
- 황민호, 「재만 한국독립군의 성립과 항일무장투쟁의 전개」(『사학연구』 제114호 2014년 6월)
- 정원옥, 「한국독립군의 조직과 독립전투」(『사학연구』 제43·44호 1992년 6월)
-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1989년 11월)
-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 2011년 12월)

- 교과서(김구 관련 서술 내용,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사용 한국사 교과서)
 - 노대환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60p, 62p, 동아출판
 - 송호정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42p, 63-64p, 지학사
 - 도면희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40p, 62p, 65-67p, 비상교육
 - 신주백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40p, 42p, 54p, 79p, 씨마스
 - 정요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38p, 63-64p, 86p, 천재교육
 - 강승호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32-33p, 56p, 58p, 미래엔
 - 김보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43p, 64p, 66p, 85p, 리베르스쿨
 - 조한경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50p, 52-53p, 해냄에듀
 - 강병수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41-42p, 68-69p, 71p, 한국학력평가원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서울 골목길 인문학과 융합 수업에 관심이 많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였다.